

여러분의 몫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12년 총회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도록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여성국과 세계선교부가 공동으로 제출한 제안서는 교단 내 기관들의 조직 개편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던 지난 5월 1일에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승인을 받았습니다. 세계선교부에서 분리된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독립 기관으로써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입니다. 한 예로, 저는 이번 가을 교단 내 다른 12개 기관의 총무들이 모이는 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는 연대사역협의회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선교를 위해 조직된 교회 여성들의 시각과 지혜를 통해 기여를 하게됨에 따라 교단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사역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회와 연회, 지역회 차원에서의 변화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이 우리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하면 가장 바람직한 조직을 만들수 있는지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총회에 제출했던 여성교회에 대한 제안서에는 분리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 이외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총회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을 재검토한 후, 앞으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최선인지를 결정하여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일부 지도부는 너무 비대한 반면, 어떤 지도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의 다양한 행사들과 정의옹호 사역이 우리의 영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부의 업무를 이야기할 때 이러한 것들을 보다 직접적으로 연관시킨다면 우리의 구성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전국사무실의 직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닙니다. 직원은 리더십, 지원, 경험 등을 제공하고, 오히려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원들과 새로운 프로그램 자문 그룹을 포함한 지도자들이 수행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꺼번에 모두 수행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구조적인 형태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다세대, 다문화, 다국어, 다민족, 성령으로 충만한 조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고, 확립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언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아들과 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순절 운동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교회와 지역사회를 보다 깊고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권력과 부에 기반을 둔 관계가 아닌, 존중과 상호 관계에 기초한 모범적인 방식으로 해외지역총회의 자매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회와 유엔에서 재난구호 또는 경제개발 또는 평화와 안보를 위해 일하는 연합에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과 지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은행 관련법에서 부터 조세구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여성들에게 맞지 않는 정책이라면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알려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서 속의 그리고 이 세상의 이름없는 여성들의 고통과 질문, 경험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일의 최우선에 놓는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연합감리교회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큰 발걸음을 내디녀야 합니다.

여성국 국장
헤리엇 올슨

